

## Our Foreign Teacher is the best !!

(우리학교 원어민교사가 최고!!)

인천신선초등학교  
원어민담당교사 박 준 성

### - 문제를 이렇게 해결했어요 -

지금 이 글을 작성하는 나의 기분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천당과 지옥”을 모두 경험한 느낌이다. 1년전 그러니까 작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나의 교직생활 17년 동안에 가장 힘든 시기였고 약간의 엄살을 보태서 지옥과 같은 시간이었다면, 지금은 그 반대로 천당에서 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라는 뜻이다. 다름 아닌 원어민 교사 때문이다. 작년의 원어민교사 자질에도 문제가 있었지만 원어민교사와의 co-teaching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었고, 무조건 잘 대해주어야겠다는 식의 미숙한 대응이 결국 문제를 쉽게 개선시킬 수 없는 상황으로 이끌었음을 지금에 와서야 깨닫게 된 것이다. 이런 시행착오를 겪고 난 후에 새롭게 만난 지금의 원어민교사는 나와 학생들에게 지옥을 천당으로 바꾸어 주는 행복과 기쁨을 주었다.

그래서 우선, 작년 원어민교사 때 겪은 시행착오를 새로운 원어민교사와 어떻게 원만하게 해결해 나갔는지에 대한 소개를 하고자 한다.

시행착오 -하나

원어민교사에게는 주거지가 무엇보다 중요하구나 !

지난번 원어민교사가 계약을 마칠 때, 소감문을 받아서 읽어 보았다. 거기에는 자신이 1년간 근무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이 자신이 거주하던 ‘집’ 문제였다고 적혀져 있었으며, 집에 대한 불만으로 인해 모든 생활이 어려웠음을 알 수 있었다. 학교에서는 정해진 예산에 맞춰서 집을 구할 수 밖에 없었고 더군다나 원어민교사가 배치되는 날 바로 입주할 수 있게끔 준비해야 되는 상황에서 원어민교사의 집에 대한 우선순위를 전혀 고려할 수 없는 입장이었다. 사실, 문화와 환경이 전혀 다른 상황에서 자신이 1년 동안 거주할 집을 자신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가 결정한다는 것은 분명 합리적인 방법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원어민교사의 집 계약은 다음과 같이 진행함으로써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우선, 교육청 원어민코디네이터의 도움을 받아 원어민교사가 연수를 받는 중에 하루를 정하여, 연수가 끝난 후 나와 행정실장이 원어민교사를 만나서 학교에서 미리 선정해 놓았던 몇 군데의 집을 같이 둘러 보았다. 교통 및 출퇴근 거리, 교육청 주거 지원금 등을 최대한 고려하여 정했지만 원어민교사는 모두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다. 결국, 교육청 주거 지원금에 본인이 약간의 추가 부담을 하는 조건으로 만족스런 집을 구할 수 있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원어민교사가 불만스럽게 한국생활을 시작했을 것이고 그것이 학교생활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거라고 생각하니, 비록 내가 저녁 늦게까지 여러 곳을 다니느라 고생은 했지만 충분히 그럴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뿐만 아니라 원어민교사 Pick-up하기 전에 미리 만나서 얼굴을 익히고 인사를 함으로써 보다 원만하고 친숙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더욱 좋았다.

시행착오 - 둘	공과사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되겠구나!
----------	----------------------

작년에 원어민교사가 처음 배치되었을 때는 기대감과 더불어 무척 조심스러운 마음가짐과 행동으로 원어민교사를 대했다. 교장, 교감선생님 모두 “아는 사람 아무도 없는 낯선 곳에 와서 얼마나 외롭고 힘들겠어. 박 선생이 잘 돌봐줘요” 하시며, 항상 관심을 갖고 대해 주셨고, 나 또한 한국생활에 잘 적응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집으로 초대하여 식사도 같이 하고 좋은 곳에 데려가 구경도 시켜 주었다. 학교 생활에 있어서도, 원어민교사의 성격이 내성적이고 학생들을 가르쳐본 경험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적응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거라는 예상으로 6개월 동안은 나 혼자 매차시 수업 지도안을 작성한 뒤, 원어민교사가 할 역할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그대로 따라하도록 했다. 어쩌다 지각하더라도 ‘혹시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면 어떻게 하지?’라는 걱정으로 그냥 지나치곤 했다. 6개월이 지나고 어느 정도 익숙해졌을 거라는 생각으로 지도안과 수업자료를 부탁해 보았지만 할 줄 모른다는 말 뿐이었다. 더군다나 지각과 수업중 자리 이탈에 대한 경고에 대해서도 아무런 개선 의욕이 없었다. 나의 중대한 실수였다. 단지 온정주의에 이끌려 내가 쉽고 편안하게 해준 만큼 원어민교사가 잘 적응하고 스스로 판단해서 하겠지라는 추측은 완전히 빗나갔던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원어민교사와는 문화체험과 여가를 같이 즐기면서 개인적인

친분을 쌓음으로써 co-teacher와의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고 문화장벽이나 갈등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는 반면, 학교 근무와 관련해서는 규정의 철저한 준수와 성실한 학습준비 및 지도 등을 문서화하고 다짐을 받음으로써 사적인 감정을 최대한 배제했다. 또한 수업지도안 작성시 원어민교사와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치고, 수업을 실시 한 후에는 오류를 찾아 개선하고 수업지도안 작성 방법도 대해서도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훈련시켰다. 이러한 이유로 새로운 원어민교사는 학교 생활 전반에 걸쳐 즐겁게 생활하면서도 아주 모범적이고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다. 자칫 원어민교사에 대한 지나친 배려와 잘못에 대한 목인이 오히려 한국인교사와 원어민교사 모두에게 해가 될 수 있음을 이번 경험을 통해 깨달을 수 있었다.

### - 한국생활 적응, 이렇게 도와줬어요 -

원어민교사에게 있어서 영어를 가르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하도록 돕기 위해서 다양한 경험과 체험을 할 수 있는 여러 관광지를 같이 다니면서 한국문화와 역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국의 여러 곳을 소개하고 홍보할 것이며, 한국에 대해 좋은 기억을 가지고 되돌아 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 문화체험 -하나

#### 관광을 하며 한국문화와 역사를 가르쳤어요.

2009년 9월 26일 토요일 아침 6시, 원어민교사와 그의 가장 친한 친구와 함께 남대문 시장을 갔다. 이어서 남산타워에 올라가서 서울의 전경을 보고, 인사동에서 다양한 한국의 수공예품을 감상하고 여러 명절 놀이를 체험하였다. 마지막으로 창덕궁에 들러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체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또한 10월1일에는 우리나라 최대놀이공원에 갔다. 퍼레이드와 다양한 공연을 보면서 신기해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에서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



(인사동)



(에버랜드 )

## 문화체험 - 둘

## 추석 명절 체험을 했어요.

추석 연휴 바로 전에 때마침 5학년 영어 10단원이 추석과 관련된 대화 내용으로 이루어진 수업이었다. 송편이나 잡채 등 추석 음식이 나오는데, 추석 전날인 10월2일에 교감선생님택에서 원어민교사를 초대하여 송편을 빚고 부침을 만드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다. 교과 내용과 관련지어 한국 문화를 직접 배우고 체험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으며,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었을 것이다.

## - 영어학습지도(원어민활용) 이렇게 하고 있어요 -

### 학습지도 -하나

### 원어민교사는 더 이상 보조교사가 아니예요

우리 학교의 경우, 5, 6학년 영어수업을 나와 원어민교사가 co-teaching을 하고 있다. 처음 한 달간은 두 개 학년의 수업지도안을 모두 내가 작성한 뒤 원어민교사의 역할을 설명하는 정도였으나 지금은 원어민교사가 5학년, 나는 6학년 수업 지도안을 작성한다. 지도안을 작성할 때 자기의 역할과 상대방의 역할을 명시한 뒤, 수업 협의시 수정하거나 보완한다. 그리고 game이나 activity 설명시에는 항상 원어민교사가 방법을 설명하도록 하고, 학생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부분만 내가 설명해 준다. 그렇게 함으로써 학생들이 좀 더 원어민교사의 말에 귀기울이게 되며 듣기 능력이 향상되는 것이다.

또한 작성된 지도안을 수업에 적용해보고 오류나 문제점 등을 쉬는 시간에 원어민교사와 협의한 후, 수정하여 다음반에 재적용하고 있다.

원어민교사가 5학년 10단원 Do you want some more? 의 수업 지도안과 자료를 준비한 것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다. 5학년 전체 인원수 만큼의 종이 컵과 짬뽕, 신맛, 단맛의 세 가지 물을 준비해서 아이들이 그것을 먹고 Do you want some more? 에 적절하게 대답하도록 하는 활동인데, 아이들이 정말 흥미를 갖고 즐겁게 수업에 참여했다. 수업 아이디어도 좋지만 그 자료들을 혼자 집에서 준비해서 학교까지 가지고 왔다는 것만으로도 칭찬을 아끼지 않을 수 없었다. Jeremy, good job !!



### 학습지도 -둘

### 원어민선생님과 1대1로 small talk 해요

영어수업은 항상 학생들과 원어민교사와의 small talk로 시작되는데, 원어민교사가 전체 학생들에게 날씨, 날짜, 요일, 주말에 한 일, 주말에 할 일 등에 관해서 질문하고 다같이 연습한 다음, 원어민교사와 나눈 대화 내용을 학생들끼리 ‘How are you?’ 노래를 부르면서 교실을 돌아다니다가 만난 친구와 다시 연습하도록 되어 있다. 이 과정에서 원어민교사도 학생들과 똑같이 활동하면서 학생들과 1대1로 만날 때마다 small talk를 함으로써 많이 학생들이 원어민교사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다.



(원어민교사와 학생의 Small talk모습)



(학생과 학생끼리의 Small Talk 모습)

### 학습지도 -셋

### ‘퀴즈’로 수업을 시작해요

퀴즈는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원어민선생님이 항상 그 날 수업 지도내용과 관련된 퀴즈를 제시함으로써 동기를 유발하고 자연스럽게 수업목표와 관련짓게 하고 있다. 예를 들면, 5학년 10단원 Do you want some more?에서 key words로 cake, fork 등이 나온다. 그럼 원어민교사가 cake에 관한 퀴즈를 내고 학생들이 맞추면, 나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물어본다. “How you say ‘케익 더 먹을래?’ in English?” 그리고 학생들은 Key expression와 연관지어 학습내용을 짐작하고 연습하게 되는 것이다. 가끔 바빠서 퀴즈를 내지 않으면, 오히려 아이들이 퀴즈내라고 아우성이다.



#### 학습지도 - 넷

#### 원어민선생님은 마술사예요

퀴즈보다 마술은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더 자극하고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수업자료이다. 수업 내용과 관련된 마술을 보여주면서 그 표현을 듣고 따라하게 하면 정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특히, 내가 하는 것보다 원어민교사가 마술을 하면 아이들은 더 좋아한다. 원어민교사가 마술에 익숙하지 않아서 내가 먼저 연습한 후 다시 원어민교사에게 가르쳐 주는데, 원어민교사도 아이들만큼이나 재미있어 하면서 열심히 배운다. 5학년 It's under the table 단원에서는 'ball base'라는 마술을 통해 다양한 위치 전치사를 가르쳤으며, 6학년 11단원 What do you want to do? 단원에서는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묻고 답하는 내용을 '마술포켓'을 사용하여 묻고 답하면서 학생들이 꼭 익혀야 할 주요문장을 마술을 통해 반복 연습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다.

#### 학습지도 - 다섯

#### 원어민선생님과 1대1 대화로 수업을 마쳐요

잉글리쉬존에서 수업을 마치고 교실로 돌아가기 전 아이들은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다. 그 시간 배운 표현을 원어민선생님과 1대1로 대화를 나눈 후 교실로 돌아가는 것이다. 원어민선생님과 대화에서 통과되기 위해 열심히 대화 연습을 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노라면 저절로 미소가 지어진다.



(원어민교사와 1대1 대화를 하면서 배운 내용을 복습하는 모습)

## - 영어관련활동(원어민활용) 이렇게 하고 있어요 -

영어활동 -하나	방과후 영어교실 재미있어요
----------	----------------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동안 매일 1시부터 3시40분까지 원어민방과후 영어교실이 잉글리쉬존에서 실시된다. 우리의 Jeremy, 교과수업 끝나고 힘들텐데, 3 level을 각각 50분씩 각 레벨 수준에 맞게 정말 열심히 잘 가르친다. 덕분에 다음 기수에는 수강신청 학생들이 많이 늘어날 것 같은 행복한 고민을 해본다.



(방과후 중급반)



(방과후 초급반)

영어활동 - 둘	유치원수업, 짧지만 유익해요
----------	-----------------

우리 학교는 병설유치원이 있고 두 개의 유치원 반이 있다. 교장선생님의 권유에 따라 월요일, 화요일 각각 20분씩 원어민교사가 유치원 수업을 들어간다. 영어문화를 접하는 가운데 어릴적부터 자연스럽게 영어와 친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원어민선생님만 만나면 Hello, Jeremy ! 라고 큰 소리로 인사하면서 손바닥을 마주치는 모습이 얼마나 귀엽고 예쁜지 모른다.



(원어민교사의 유치원 할로윈 관련 수업 장면)

영어활동 - 셋	교사영어연수를 실시해요
----------	--------------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4시부터 4시40분까지는 원어민선생님과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영어를 배우기 위해 만나는 시간이다. 모든 선생님들의 영어실력이 쑥쑥 향상되었으면 좋겠다. 선생님들과 만날 때마다 서툰 한국말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는 원어민교사는 벌써부터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인기짱이다.



( 일주일에 2회 교사 영어연수 장면)

영어활동 - 넷	수요일 아침은 원어민선생님과 반갑게 인사해요
----------	--------------------------

매주 수요일 아침 8시10분부터 40분까지 원어민선생님은 아이들을 교문에서 맞이한다. 교문 앞에 서서 등교하는 모든 아이들과 영어로 인사를 나누며 하루를 시작한다. 일부 아이들은 원어민선생님과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미리 집에서 연습해 오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학교나 학원에서 배운 표현을 적절하게 활용해보는 아이들도 있다. 원어민선생님만 보면 도망가던 아이들도 요즘은 반갑게 인사를 나눌 정도다. 앞으로 꾸준히 지속된다면 아이들의 영어 교육에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주리라 기대해 본다.



( 원어민교사와 학생들이 교문에서 아침 인사 나누는 모습)



현재 우리 학교는 매주 수, 목, 금 8시40분부터 9시까지 20분간 아침 영어 방송을 실시하고 있다. 대부분 담임선생님이 TV를 통해서 영어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지도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한 달에 2번 정도 원어민교사가 학교방송을 통해 영어도 가르치고 영어 퀴즈도 내는 ‘원어민선생님과 함께하는 아침방송영어’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 아이들에게 좀 더 영어와 친숙해지고 영어공부에 대한 자극을 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

### - 원어민교사 활용우수사례를 마치며 -

서두에서도 얘기했듯이 나는 작년에 원어민교사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그리고 그 당시 원어민보조교사의 필요성이나 존재 가치에 대해서 너무나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때의 실수를 거울삼아 어려운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서 원어민보조교사와 어떻게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과 반성을 하다보니, 원어민보조교사가 우리 아이들의 학교 영어교육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결국, 원어민보조교사의 존재가치는 영어를 담당할 교사의 노력 여하에 따라 충분히 달라질 수 있으며 더불어 아이들의 효과적인 영어교육을 위해서는 의욕적이고 능력있는 원어민교사의 선발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영어담당선생님과 원어민보조교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올바른 영어교육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면, 그 효과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를 창출할 것이라고 확신하며 이 글을 맺고자 한다.